

<표절, 짜깁기 해외시찰보고서 은평구의회 규탄 기자회견>

“아깝다 세금, 바꾸자 해외시찰”

2월 28일 은평구의회가 공개한 해외비교시찰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이 타 자치구 보고서와 개인 블로그 글 등을 표절, 짜깁기하여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 말 은평구의회는 두 개의 팀으로 나눠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결과보고서가 2013년 7월 안동시의회 연수보고서의 일부를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은평구 당원협의회와 은평녹색당의 확인결과, 인터넷 블로그 글을 표절하고 짜깁기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주관적인 감상문 수준의 글마저 베껴 쓴 것입니다.

또한 결과보고서에는 해외시찰 목적에 부합한 내용이나 예산 집행 내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방문지 정보와 여행 감상문 수준의 보고서로, 아니 보고서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이런 표절·짜깁기 감상문을 보고서라고 내놓는 것은 은평구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해외시찰은 명확한 심사기준 없이 단순시찰과 외유성 연수가 기획되고, 관련 예산과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심사위원회가 열리지만 어처구니없게도 그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은평구 구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의 경우처럼 연수 기획을 지역 민간 기구에 의뢰하거나, 춘천시의회처럼 시민사회 인사를 심사위원에 포함시켜 연수목적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면, 세금을 낭비하는 외유성 연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과천시의회의 사례처럼 관련 NGO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연수 계획서, 예산 내역 등의 사전보고와 사후평가를 거친다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또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

실제로 지난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세타가야구로 해외연수를 떠난 관악구 의회의 경우에는 노동당 소속의 나경채 의원이 직접 실무책임을 맡아 연수 일정을 짰 것은 물론이고, 지역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연수의 목적과 일정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에 소재한 ‘착한여행사’라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면서 관내 사업체를 배려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동안 해외연수에 비판적이었던 지역 NGO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연수 후에는 의원들이 연수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노동당 은평구 당원협의회와 은평녹색당은 혈세를 낭비하는 해외연수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은평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구의회와 해당 구의원들의 사과와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합니다.
2. 외유성 연수로 낭비한 경비 일체를 반납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구의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4. 향후 공무국외여행 시, 해외연수 계획서와 사후 결과보고서는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 역할을 하는 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은평구의회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주민을 위해 일하는 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당 은평구 당원협의회 / 은평녹색당